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3월 10일(금)
..(음력 2월 13일)..

Пятница
10 марта 2017 г.
№ 9(11672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8절을 맞이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정 할머니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여성의 날 기념

지난 6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3·8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야코가 여성들에게 축하하며 가족 지킴이와 경제사회활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지사는 이날 가족, 여성들을 위해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실현을 위한 직장과 여가활동에서의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문제 해결과 여러 국면에서의 질적인 생활 조건에 대한 보장을 언급했다.

중년과 고령의 여성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이날 코제야코 주지사는 명절 전에 <사할린주의 명예 주민> 칭호를 받은 타마라 부토리나 사할린청소년동양무술스포츠학교 사범과 니나 푸스토쉬나 사할린주교육베테랑사회단체 회장에게 기장과 꽃다발을 수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크고 작은 기념행사들이 사할린주내 각 교육기관, 문화기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2017년 첫 한 달간 경제사회발전 결과

2017년 1월에 지역 총생산량은 1조549억루블리(작년 같은 시기 비해 95%)에 달했다. 산업생산량은 2조378억루블리다.

1월에 응축가스를 포함해 석유 150만톤, 가스는 25억 평방미터, 석탄은 22만600톤을 채취하여 작년보다 증가한 지표를 나타냈다.

생선 및 해산물 어획량은 7만2500톤에 달했고, 수산물은 4만5200톤이 가공되었다.

1월 농산물 생산량은 2억990만루블리에 해당했고 육류 생산량은 13.1%, 우유는 4.3% 증가되었는데 달걀 생산량은 14.5%가 감소했다. 2017년 1월에는 주택 2만7500평방미터가 운영되었다. 이는 작년 1월보다 2.3배 더 증가한 셈이다. 사할린주민들은 자부담과 대출로 주택건설 부문에 있어 작년에 비해 2배 증가한 1만1300평방미터가 건설되었다.

소비시장에서 일반식품 매출은 4.7% 증가되었고 주민 평균 소득은 4만7100루블리에 달했다.

평가에 따르면 월 중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1% 상승한 7만4000루블리로 나타났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 불법 이주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

사할린주에서 불법 이민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 불법이주자들의 위반을 강력하게 해결하겠다고 지난 7일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는 법률보호기관 지도자회의에서 밝힌 가운데 2월 말에 주지사는 사할린주에서 여러 경제분야에서 이민자들의 노동활동이 제한한다는 특별법령에 서명했다. 외국 근로자들은 주로 건설업, 식품업(제빵, 제과, 음료), 교통(버스, 택시 등 운전), 전문매점에서 판매하는 작업활동 등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 법령은 3월 10일부터 발효된다.

2016년에 사할린주에서는 외국인 1만7000명이 공식적으로 채용되었는데 대다수 90%는 독립국가연합국 국민들이다. 법보호기관들의 정보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이민자의 불법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사할린, 쿠릴지역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사할린주보건부, 2016년 사업 보고 2017년 과제 세우

지난 3월 3일 사할린주보건부에서 박 알렉세이 장관은 주내 의료기관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2016년에는 주예산에서 보건부에 295억 루블리를 배당했다고 알렸다. 이에 의약품 보급 프로그램 시행에 8억400만 루블리, 의료기관 개건에는 2억4200만루블리, 의료장비 구입에 5억340만루블리 등 지급되었다. 특히 주지사의 지시에 부응하여 지방진료소들을 위해 현대화된 치과장비를 구입하고 보건시설을 개건했다.

특별투자프로그램 일환으로 주내 농촌지역에서는 10 소진료소와 트로이츠코예에는 외래 환자 진료소(교대당 120명 수용),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중앙구역병원의 치료실이 개설되었다.

보건부는 응급실, 주아동병원과 시아동병원의 외과진료실 건설을 2017-2018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올해는 농촌지역에서 소진료소 3곳 외에 외래환자 진료소 2곳을 건설하고 성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외래 환자 진료소, 시신 보관소, 방역연구소 등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주내 보건분야에서는 의료관계자 1만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의사 2338명, 간호사 5485명이다.

작년에는 인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사 130명과 간호사 131명을 고용했고 총 4년간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에는 406명의 의료진과 453명의 전문 간호사가 유지되었다.

의료 관계자 2319명의 자질 또한 향상되었는데 그중 의사가 581명이다.

전문의료진의 평균 임금은 2015년보다 11.9% 상승한 2016년에 9만100루블리, 중간 의료진(간호사 등)의 평균 임금은 2015년보다 8.4% 상승한 5만100루블리에 해당했고 1차

의료진은 3만8천100루블리로 2015년보다 19.8% 상승했다.

작년에 주민들에 관한 적극적인 검진사업으로 질병에 대한 발견률도 높아졌다. 사할린 주민들의 평균 질병률은 4.96% 증가, 초기질환은 5.4% 증가되었다. 신종 질병률은 2015년에 비해 20% 증가되었다. 응급수송진료 또한 2.7% 증가하여 이에 3325명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영아 사망률은 신생아 1000명 중 3.6명으로 2015년 보다 감소했다.

병원을 찾은 일반 질병 중 1위는 호흡기관 질환, 2위는 소화기관, 3위는 순환기 계통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주보건 당국 감독의 일환으로 128회 검문을 실시한 가운데 52% 가 의료서비스제공에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올해 박 알렉세이 장관은 일반질병으로부터의 사망률 10% 감소라는 목표를 세웠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택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기도, 올 5월 말 사할린 연주회 개최

이번 주초에 농어촌희망재단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올해 KYDO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 서천오케스트라와 사할린학생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대표단은 주문화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문화관과 관계자들과 만나 5월 25일경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연주회 개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희망재단이 후원하는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올해 사할린에 4번째 찾아오고 있다. KYDO는 지난 2012년부터 매



년 세계적 지휘자 금남새를 총 감독으로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정기 합동연주회를 개최, 1만명 이상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그 동안 함께 활동한 연주인원만 1,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할린주, 100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 12명

사할린주통계국이 3·8절을 앞두고 몇 가지 정보를 마련했다.

사할린주에는 여성이 총인구수의 52%로 25만300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 및 쿠릴에서 여성의 평균 나이는 40,8세인데 이는 남성보다 4,8년 더 많고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081명(러시아연방에서는 여성 115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수가 여성수보다 1,4배 더 많았고 도시지역에서는 1,3배, 농촌에서는 2,6배로 남성수가 더 많다. 45세 연령대에서는 도시에서나 촌에서 여성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40세부터 50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여성은 4%, 50세부터 60세 연령대에서는 15,5% 남성보다 더 많아 고령이 될수록 여성수가 많아졌다. 65세이상 그룹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또한 여성으로 12명이나 된다. 그중 10명은 도시에, 2명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74세, 남성은 62세이다. 2015년에 법률혼 4300건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고 결혼 100건당 이혼은 67건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주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하게 모든 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분야는 보건·교육·호텔 및 요식사업·문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경제 분야로는 상업, 호텔 및 요식사업에서는 2,3배, 보건분야에서 4배, 교육분야에서는 5,5배, 문화분야와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4,5배이다.

사할린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교육률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을 하는 총 인구수에서 대학(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35%(남성은 24%), 전문(중등)교육은 여성이 29%(남성 25%)였고 시장경제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65%, 남성의 고용률은 73%이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들 중에서 여성수(48%)는 남성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할린주통계국 홍보실)

여자는 여성다워야 하고 가족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한다

여자들에게는 꼭 꽃을 선사

3월 8일 세계의 여성의 날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일부 남성들에게 두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여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3·8절을 어떻게 기념할 계획입니까?

이고리(30대 중반, 기업인): 사랑을 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여성의 날 아침식사 담당은 아들이 합니다. 우리 식구는 겨울 낚시를 즐기는 편이라 낚시하러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물은 이미 준비해놓았고요. 아내에게 목걸이를 주려고요.

박 왈레리(50대 초반, 회사원):

약속을 지키고, 파트너에 대한 충실성이라 할까요. 여성의 날에는 아내와 딸을 위해 아침 밥상을 차리고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 딸에게 큰 개가 있는데 개를 데리고 야외에서 스키를 즐겨 볼까 합니다.

아나톨리(60대 초반, 연금자):

여자는 성실해야 하고 자신을 아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에게 꽃과 필요한 물건을 드릴 거예요.

세르게이(60대 후반, 연금자):

여성을 향한 태도와 생각은 사회 전체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자의 성숙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배려가 많고,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남자들이 문제이

죠. 다만, 우리, 남자들이 어머니, 애인, 가족을 생각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날에는 물론 꽃,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죠. 딸들에게 주는 선물은 주로 집사람이 고릅니다. 결혼한 딸들이 식구와 함께 집을 찾아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습니다.

게오르기(40대, 회사원):

마음 착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대화를 나눌수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꼭 준비하죠. 이날은 보통 가족끼리 보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아들과 함께 주방을 담당하고 그 전에 집 청소를 다 해줄 것이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할 생각입니다. 집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블라지미르(60대 중반, 회사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아내와 딸들에게는 꼭 꽃을 준비하고 상도 차립니다. 물론 장모님께도 축하해드리고요.

안톤(20대, 임시 일하지 않음):

글쎄요, 성실함, 지혜, 배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륙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도 오래 떨어져 살다보니 3·8절은 집에서 참, 오랜만에 보낼 생각입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

구요. 엄마에게 꽃을 드리고 아마도 요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로만(40대, 개인기업인):

착하고, 가족에 대한 배려심, 낙관적인 것, 살림을 할 줄 아는 것, 원망스러움을 잊을 줄 아는 것입니다.

꽃을 준비하지만 선물 대신에 금일봉을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딸애에게는 보통 아내가 선물을 준비하죠. 여성의 날에는 우리 아들하고 가족 여자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하루 종일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지킬 것입니다. 물론 이날 어머니, 장모님, 누나, 동생, 조카를 비롯해서 친구들을 축하해요. 스마트폰으로 축하문자도 많이 보낼 겁니다.

이 왈레리(60대 중반, 기업인):

여자에 관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여자는 큰 글자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봐요. 가족 안에서 지혜롭고 사회인으로서 똑똑하고,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 걸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에게 새 스마트폰을 준비했고 물론 꽃다발을 선사하고 그리고 맛있는 프랑스 와인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저모

주향토박물관 전러시아 인터넷축제에 사할린주민들의 성원 요청

사할린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박물관 멀티미디어 인터넷축제인 <인터넷 박물관>에서 주향토박물관이 인기상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축제 사이트에 들어가 사할린박물관의 프로젝트 <19-20세기 사할린 및 쿠릴 열도의 민족 문화>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인터넷 박물관>은 올해로 벌써 3회를 맞이하고 있다. 첫 축제는 종교역사박물관이 2014년에 개최했다. 2회(2015-2016년)에는 러시아 내 63개의 박물관이 참여하여,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100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축제에는 대규모 박물관들과 함께 러시아의 중소 도시 박물관들도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 행사가 박물관 활동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쿡쿠르에 우리 나라 여러 지역에서 90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한편,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은 올해 <인터넷 박물관>축제에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осят поддержать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интернет-фестивал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омочь

областному краеведческому музею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на интернет-фестивале музейного мультимедиа "Музейный Гик" в номинаци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Для этого надо зайти на сайт интернет-фестиваля, найти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Виртуальный муз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XIX-XX веков"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2017 год — это уже третий сезон "Музейного Гика".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узеем истории религии в 2014 году. Во втором сезоне (2015-2016 года)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3 российских музея, представивших 100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фестивале наравне с крупными музейными институциями участвовали музеи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для которых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подлинным прорывом в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й для них сфере музей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90 заявок из всех уголк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участвует в "Музейном Гике" первый раз.

올해 사할린학교 9학년생 5000여명 국가최종시험 응시

지난 3월 1일, 9학년 졸업생들을 위한 국가최종시험 신청접수가 완료되었다.

올해 국가최종시험-9에는 약 5000명 이상의 9학년 학생들이 치르고 장애아동 및 소년원 수감생 등 246명은 국가졸업시험 형태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기본 일반교육 졸업장을 받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9학년생들은 4개 과목(필수과목2개 - 러시아어와 수학, 선택과목 2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3300여 명이 선택한 '사회학'이었고, 그 다음으로 생물학(2102명), 지리학(1409명), 정보학과 정보통신기술(734명), 물리학(600명), 화학(562명), 외국어(432명), 문학(189명), 역사학(187명)이 뒤를 이었다.

9학년 졸업생들을 위한 2017년 국가최종시험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사전 단계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기본 단계는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추가 단계는 9월 5일부터 22일까지라고 사할린주 교육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этом году 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девятиклассников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тоговой аттестации

1 марта завершилась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й на участ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тоговой аттестации (ГИА-9)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9-х классов.

В этом году ГИА-9 будут сдавать более 5 тысяч девятиклассников региона. 246 ребят собираются сдать экзамены в фор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ыпускного экзамена — она разработан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ребят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учащихся специальных учебно-воспит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закрытого типа.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об основном общем образовании впервые учащиеся 9-х классов будут сдавать 4 экзамена: 2 обязательных (русский язык и математику) и 2 предмета по выбору.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가요무대로 3·8절을 맞아

3·8절을 앞두고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시 한인회 건물에서 노인정 할머니들을 위한 명절행사가 가요무대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가요무대>행사 발의자는 장기간 한인사회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어린이 창작협력회 김춘경 회장이다. 김 회장의 지휘 아래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무궁화>중창단이 부르는 <금수강산에 새 봄이 찾아드니 백화가 만발하는구나>라는 노래로 시작되었다.

이날 할머니들을 축하하기 위해 유아교실의 유아들이 축하공연을 벌였다. 특히 귀여운 유아들이 울동하면서 <할머니 머리엔 눈이 왔어요.>라는 노래를 불러 노인정 할머니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들었다.

박위석, 강상욱 부부는 이날 <당신뿐이야!>라는 노래로 관객의 환호를 받았고 시한인회, 주여성회 회원인 아마추어 가수들 김준길, 김웨철, 김종길, 허 이리나, 야마다 알렉산드라 등은 이날 무엇보다 정성을 들여 할머니들의 명절 기분을 돋우었다.

노인정에 80고개를 넘긴 이복순 할머니가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잃어버린 30년>을 감미롭게 부르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여성회의 트리오는 노



래 <서울 서울 서울>을 흥겹게 불러 할머니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했다. 김춘경 진행자는 맛깔나는 가창력으로 노래 <황진이>로 가요무대의 대미를 장식했고 공연 마무리에는 <소망>한글학교 박영자씨가 지도한 반의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시낭송이 있었다.

김선목 시인의 '그리운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시여서 한편으로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쫄레꽃 향기로운
내 고향 오솔길
아침 햇살 한 아름
안겨올 때면
내 맘에 피어나는
어머니 생각에 그리워 그리워
먼 하늘 바라보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그리움이 밀려오는 달빛 고운 밤
소쩍새 우는 소리에 애절한 마음
가슴에 밀려오는 어머니 생각에
보고 싶고 보고파서
저 먼 달을 보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김선목-

이날 행사를 주최한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장은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다가오는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할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도 노인정을 찾았다.

회장단은 모든 여성분들에게 축사를 보내며 할머니들에게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생이 되시길 기원했다. 회장단은 이날 할머니들에게 떡을 장만하여 대접했다.

아쉬운 점은 공연장으로 쓰인 방이 너무 작아 겨우 3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뒤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은 한인문화센터가 수리를 앞둔 관계로 내년 3·8절 행사는 깔끔하게 수리된 건물에서 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시한인회 여성들은 할머니들을 위해 케이크를 비롯해서 맛있는 명절상을 차렸고 시한인회 남성들은 이날 방문한 모든 여성들에게 꽃을 선사했다.

꽃을 든 여성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만발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홍성학 씨, 사할린영구이주민 쉼터에 복합기기 후원

아산시 신창면에 거주하는 홍성학 씨가 지난 6일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의 연계로 사할린영구이주민 쉼터에 팩스복합기기를 후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사할린에서 신창면 소화주공아파트로 이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해마다 러시아영사관에 한국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적십자 등에 보낼 서류 전송을 해야 함에도, 팩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행복키움추진단장의 말에 흔쾌히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원하게 됐다.

후원물품 지원한 홍성학 씨는 "얼마 안 되는 기부물품인데 사할린영구이주민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도 기뻐하셔서 너무 보람되고 의미가 있었다." 고 말했다.



김정식 신창면장(행복키움공동위원장)은 "신창면 지역복지 증진과 면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영구이주민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의 맞춤형복지를 통해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투데이)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러시아어로 혹은 한글로 쓰인 그 편지엔, 자신이 어떻게 사할린에 오게 되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등의 사연이 마치 정성을 다해 수놓은 바늘땀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실혹 맞춤법이 틀리고 표현이 좀 어색할지언정, 그것을 쓴 사람의 진심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왜 또 헤어져 살아야 하나?"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사할린 한인과 관련해 특별법안 7건, 개정안 1건, 결의안 7건, 건의안 2건이 제안되었다. 이 중 가결된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 일부와 건의안 뿐, 정작 법적 구속력 아래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전부 폐기되고 말았다. KIN에서 사할린 한인의 편지모음집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이와 같은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가결하는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동포들의 눈물로 얼룩진 현실을 진심으로 '이해' 하길 바랐던 것이다.

"부모님은 고향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990년에 코르사코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두고 혼자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영주귀국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기다리다 결국 200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사할린 한인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_문인순

"우리 두 언니들도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셨습니다. 여러 형제가 같이 모여 살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리던 고향에 가서 형제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어찌서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귀국을 하고 그 이후 사람들은 사할린 땅에 남아야 합니까? 사할린에 남은 2세 3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이 청을 받아주세요. 사할린 한인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_송계섭

"지금 1세 분들, 1945년 8월 15일까지 탄생한 분들은 영주귀국으로 한국으로 나갑니다. 저는 생일이 12월 5일이기 때문에 영주귀국도 못합니다. 누님들은 영주귀국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고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남매들이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야 합니까! 사할린 특별법안을 속히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_배명국.

동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특별법'이란, 정확히 말하면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을 말한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이 강조되었음에도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18대 국회 또한 사할린 동포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하여 소관위원회의 대안까지 만들어놓고도, 정작 법 제정에는 실패해 안타까움을 샀다.*

그리고 현재 19대 국회에는 사할린 동포 관련 법안 두 가지가 상정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혜철(민주당/안산) 의원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11.13)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화(새누리당/부산) 의원(국회의장)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 개정안」(2013.08.13)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할린 한인 사이에는 '이번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더불어,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 - 이전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원칙은 폐기되어야

사할린 동포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은 평생의 숙원이었다. 그것의 물꼬가 마침내 트이기 시작한 것은 1988~1989년. 이 시기에 특별전세기가 하바롭스크(2회부터는 사할린)와 김포공항을 오가게 되면서 한인들의 모국 방문과 친지들의 직접 방문이 이루어졌고, 영주귀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갔다. 그리고 '88서울 올림픽' 이후 소련의 태도도 변화하여,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것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할린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영주귀국의 대상을 사할린 교포(일본에 의해 징용 징병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 혈통의 무국적자, 소련국적 소지자, 북한국적 소지자) 1세 및 1세를 포함한 가족(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최초에 영주귀국을 고령의 독신자로 한정된 규정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내연고자의 재정 보증, 신병 인수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실제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последней статье мы с вами говорили про окончательную победу саримов,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настоять на своей идеологии и провести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о как главенствующую философскую и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Однако результатами победы они не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 уже в 1575 г. среди самих саримов начался раскол.

Начался раскол совершенно по ничтожной причине — два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чиновника претендовали на одну должность и не пожелали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Они собрали вокруг себя внушительные группы своих сторонников, которые стали зародышами будущих «партий». В итоге возникли две партии — Восточная и Западная, по названиям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частей Сеула, в которых жили их руководители.

Вскоре конфликт был забыт и вытеснен другими конфликтами, однако разделение осталось. Восточная партия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недолго и вскоре тоже раскололась на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Так в Чосоне появилось три партии, противостоящих друг другу саримов.

Несмотря на конфликты и расколы первые сто лет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были успешны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рё пала в основном потому, что ее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бы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дорогим и малоэффективным, что в итоге привело к социальному хаосу и параличу государства. Ваны Чосон учли ошибк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здали друг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 дешевый и рациональный, который просуществовал вплоть до XIX в. Скопирован этот аппарат был, разумеетс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Китая периода династии Мин.

Китай дал Чосон не только общую структур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но и принципы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а, назначений и перемещений. Официаль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вела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китайском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м языке (вэньяне или ханмуне), несмотря уже на наличие хангыля. Впрочем последнее был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 вплоть до начала XX в. во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эньянь был главным языком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и бюрократии. Местные письменные системы были только для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Итак, какова же была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в Чосон? Высшей фигурой был сам монарх, носивший титул «вана». Ванами ранее (в I тыс. до н.э.) называли правителей в Китае, однако потом китайский правитель стал именоваться императором, а титул «ван» был оставлен для правителей с более низким статусом — владетелей удельных княжеств в самом Китае и монархов соседних стран.

Члены семьи вана и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и из клана Ли, образовали прослойку высшей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знати. Однако особенностью Чосона было то, что родственники вана, его клан, не играли особой роли в приняти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практически до XIX в. и не име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илы.

За врем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на корейском престоле побывало 27 реально правивших страной монархов, а также пять «почетных» ванов, которым выдали этот титул посмертно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Ваны Чосон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долгожителями — средний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равнялся 46 годам, что при средн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жителей Кореи в 25 лет было существен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авил ван Ёнджо — 52 года, а самым коротким было правление Инджона (8 месяцев).

Строгого порядка престолонаследия в Чосоне не было. Наследник назначался правящим ваном, причем выбрать он мог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таршего сына, а любого другого из своей семьи — любого по старшинству (не важно от королевы или наложницы), сына или внука. Если ван завещания не оставлял, то ваном становился его старший сын. (Интересно обыгран этот порядок в престолонаследии в сериале «Герой Хон Гильдон» — рекомендую посмотреть очень яркий фильм *쾌도 홍길동* — когда претендент на престол, младший сын вана от королевы, был уверен, что отец оставил завещание в его пользу и развязал борьбу против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Первые ваны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многое взяли от основателей династии — Ли Сонге и его сына Ли Банвона, которые изначально были воинами и име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ривычки. Их потомки также любили поохотиться, ценили коней и оружие, гордились физической силой и воинским мастерством. Однако шло время, во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забывались и влияние конфуцианства (осуждавшего насилие и милитаризм) постепенно возраст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правителей более позднего периода Чосон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утешествовало по стране и никогда не выезжало за ее пределы (если кто видел чосонские картины того периода, может заметить пышные и громоздкие церемони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е вана, всего лишь посетившего могилу матери и отц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ул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ан превратился из воина в обычного чиновника. Его день был заполнен до отказа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й работой и тщательно распланирован. 2–3 часа он должен был посвятить изучению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канона и древних текстов, 7–8 часов уходило на работу с бесчисле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Южносахалинец Вячеслав У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е

9 марта воспитанник отделения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ячеслав У и его тренер Владимир Ополевы вылетают на Всемирные зимние игры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Перед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с юношей и его мамой встретился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ячеслав У вошел в число 125 человек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СО)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отборо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спартакиаде СО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Белорецк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юноша показал хорошую спор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тебя с этим достижением. Ты первый сахалинец, кто вошел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России. Это не только твоя личная победа, но и победа всего региона, который ты будешь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 прести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 сказа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заслуга твоего тренера Владимира Ополевы и твоей мамы, которая болеет за тебя всей душой и сердцем. Уверен, что твой пример вдохновит многих ребят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ячеслав стал вторым островным спортсмено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кто добился таких



успехов.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м был сахалинец Кирилл Финкельман,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Сочи. Теперь Вячеслав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страны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ш город и регион в дисциплине «горные лыжи» на Всемирных зимних играх специ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 нарушениям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с 14 по 25 марта в Австрии.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ают над развитием адаптивного спорта, чтобы у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го числа юных горожан, имеющих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были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успешной социализации. Следом за адаптивными занятиями

плаванием и созда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городском бассейне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ланирует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среди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другие виды спор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пециа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России» Наталья Бурых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едстоящ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специа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 это всемирное движение, занимающее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ведени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для лиц с нарушениями интеллекта.

— Спорт очень многое дал моему ребенку, помог раскрыть его способности, — говорит об успехах сына Ольга У. — Специа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 это способ показать, что наши дети — с не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ни так же, как все, радуются, любят и отдают нам свое тепло. Они все умеют, надо просто немножко им помочь, надо постоян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любить и ценить их.

Своим секретом больших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с главой города поделился и сам Вячеслав: «Главное — сила воли и верить в себя всегда, и тогда ты достигнешь своей цели.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йся, что бы ни было у тебя на пути».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сыграют в соста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6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м центр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ДСО) и Korean Young Dream Orchestra (KYDO —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Южной Кореи),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Надежда», уже более 5 лет объединяющего более тысячи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KYDO, который выступает с концертами как в родной стране, так и за границей.

Основная цель KYDO — развитие музыкального таланта ю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обмен опытом между оркестрами разных стран. Вероятно поэтому первой темой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л приезд корей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на Сахалин. Уже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СДСО и KYDO планируют дать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в августе десять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и трудолюб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СДСО отправят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и смогут сыграть в соста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долгое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рассказывает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Как показали осенние гастроли в Хэйхэ и Благовещенске,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а пике развития, и, если нам удастся наладить обмен учеников с Южной Кореей, это будет прорыв, СДСО выйде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объявит решение по импичменту президенту 10 марта

Ре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РК по импичменту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будет оглашено 10 марта в 11 часов ут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сре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уда Пэ Бо Юн.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утверждён, Пак Кын Хе окончательно лишится долж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и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должны пройти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Если суд отклонит импичмент, она немедленно вернётся к исполнению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и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о февра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чалось размещение комплексов ПРО ТНААД в РК

6 марта в РК прибыли части комплекса ПРО ТНААД,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в уезде Сон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Две пусковые установки и комплектующие к ним доставлены транспортными самолётами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авиабазу Осан в городе Пхёнхэ-к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б этом 7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змещение систем ПРО ТНААД в РК направле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амках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ракетной и ядерной угрозам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еул предпринимает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истемы ПРО ТНААД вступили в действи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ерехвата и уничтожени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атмосфере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Работы по развёртыванию систем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двух месяцев. Изначально их размещение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лето, однако этот процесс решено ускорить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Пхеньян: Ракетные пуски 6 марта – часть учений «Хвасон»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произведённые 6 марта,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учен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Хвасон», в задачу которых входит нанесение ударов по американским базам в Япо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обавив, что за учениями наблюдал лично Ким Чон Ын. Он отдал приказ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сила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сохраня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готовности,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в которой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 начаться война. Упомянув о совм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иях, он указал, что в случае малейших провокаций Север ответит ядерным ударом. Последние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оверку возможностей оперативной реализации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а также процедуры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й боеголовки,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 РК развивается культура крупны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При общественн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ранз ёльмэ», действующей в РК, имеется общество Nopog Society, в которое входят люди, делающие больши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Численность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быстро растёт. За 10 лет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5 тыс. человек. 6 марта сообщили, что гольфист Ко Чжин Ён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ся в обществе под номером 1500. Nopog Society было создано в декабре 2007 года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больши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Через восемь лет в него входили 1000 человек. Еще через год и три месяца 1,5 тыс. Больше всего среди них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46,3%. Также в составе част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лица в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депутаты, госслужащие, артисты, спортсмены. 169 человек сохраняют статус анонимов. За все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Nopog Society объём собранных пожертвований составил 138,8 млн долларов.

С 20 марта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стартует программа ночной прогулки

Управление охран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готовит программу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С 20 марта по 14 апреля древний столичный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будет открыт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чтобы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погулять под светом звёзд.

Сама программ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Прогулка под светом звёзд». В ходе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олакомиться дворянским ужином эпох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слушая испол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затем осматривать весь комплекс дворца Кёнбоккун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ида. 7 марта начнётся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в интернете.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сайта может купить максимум четыре билета.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билета составляет 50 тыс.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44 доллара.

(RKI)

Спецпрокурор Пак Ён Су опубликовал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6 марта команд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ак Ён Су опубликовала итоговые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елу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подозреваемой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ок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полномочиями.

В докладе спецпрокурора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ак Кын Хе, сговорившись с Чхве Сун Силь, в период с сентября 2015 года по феврал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говорилась о получении от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а 21,3 млрд вон или 18,4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еальности было передано 6,7 млн долларов.

Спецпрокурор считает, что Ли Чжэ Ён взамен получал поддержку в процессе передачи ему управления компанией. Кроме того, Пак Кын Хе вменяется превышение полномочий в связи со скандалом вокруг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чёрного списка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В него,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ключаются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левого толка», критикующ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тобы лишить их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государ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куратуру было передано дело бывшего старшего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опросам гражданской политики У Ён У,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свои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а также дело Чон Ю Ра, дочери Чхве Сун Силь, находящейся в Дании.

Между тем,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не была допущена служб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ези-

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не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обыск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олучить список посет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отказа Пак Кын Х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опросе спецпрокурор не сумел выяснить подробности по ряду вопросов.

Сам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езидент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лностью отвергли все обвинения, указав, чт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не обоснованы и не подтверждены. Адвокат президента Ю Ён Ха заявил, что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была сформирована п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лишь части оппозиции, а процесс её создани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является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Он заявил, что речь идёт о типичн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скандале. Говоря о допросе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ый не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адвокат заявил, что спецпрокурор подорвал доверие, открыв определённым СМИ содержан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Кроме того, адвокат назвал неправомерным требование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ровести аудио- и видеозапись допрос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ак Кын Хе участвовала бы в нём как свидетель. Кроме того, адвокат указал, что к Пак Кын Хе и Чхве Сун Силь применили понят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ущества, которое не признаётся даже между отцом и сыном.

(KBS World)

Установлен первый в Европе памятник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8 Марта в Германии установлен первый в Европе монумент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амятника прошла в парке Nepal Himalaya Pavilion в Верхнем Пфальце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Регенсбурга земли Бавария.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орода Сув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местной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поддержку создания монумента и их немецких партнёров.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приурочено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с целью не тольк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и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подобной трагедии, но и выступить против наруш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сексуального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 Ранее монументы жертвам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установлены в США, Канаде, Австралии и Китае.

(RK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овет аэропортов в 12-ый раз признал Инчхон лучшим аэропортом мир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12-ый год подряд назван лучшим в мире по качеству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 верс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вета аэропорт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7 марта.

Общая оценка аэропорта составила 4,99 пункта из пяти возможных. Впервые первенство Инчхон завоевал в 2005 году, через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С тех пор лидерство удаётся сохранять.

Инчхонский аэропорт занял первые места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й крупный аэропорт с ежегодным пассажирооборотом более 40 млн человек», «Лучший аэропорт АТР», «Лучший крупный аэропорт АТР».

Президент Корпо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Чон Иль Ён заявил, что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чтобы закрепить за Инчхоном статус лучшего в мире.

Сеульский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редних аэропортов с пассажирооборотом от 15 до 25 млн человек. До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Данный рейтинг проводится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пассажиров по 34 категориям.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600 тыс. человек в 84 странах.

(KBS World)

Пятеро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достоены Премии KBS

В среду в штаб-кварт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KBS пяти выдающимся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за заслуг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числе лауреатов проживающий в Японии кинорежиссёр Пак Су Нам, который снял ряд фильмов, освещающих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фильм «Молчание», посвящённый проблеме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Другие лауреаты – бывш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Kavlico Corp, внесший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рофессор Ю Чжэ Син из Канады, основатель фонда Lee&Yum Ли Бэ Ун из США,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Ли Гын Тхэ из Германии.

Премия KBS вручается с 1992 года раз в два года тем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преодолели трудности и сво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вселяют надежду 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нося вклад в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и культуры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она присуждалась в 19-ый раз.

(RKI)

Возвращение компаний РК на родину поможет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безработицы среди молодёж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являе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благоприятствующие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Это помож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безработицы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июнь 2016 года за рубежом работали 11.953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Они наняли на работу около 3,5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5.870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словам ведущ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нститута Ян Гым Сына, если на родину вернуться 10% или 587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то они создадут 290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Таким образом, 61% молодых безработных корейцев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боту. В РК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компаний в их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Однако за этот период лишь 30 предприятий вернулись или планируют это сделать. Опрос глав компаний показал, что 50% из них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ы нынешней системой возвращения бизнеса на родину.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дали лишь 23,3%.

(KBS World)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поздравил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енским днем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со сцены Чехов-центра к собравшимся жительницам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Дорогие женщины, в жизни области вы играете огромную роль, - сказал он. -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вам регион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растёт экономика, повышается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реализуется много значимых и интересных проектов. Но, конечно, самое важное, это то, что вы дарите жизнь. Многие делаете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По сути, на ваших плечах держится семья. Не случайно женщин называют хранительницами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И, конечно,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очень важно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ас. Обеспе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сформиро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работе и творчестве, помочь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Поэтому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чественного и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и курильски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льготную ипотеку при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Для тех, кто имеет одного ребенка, ставка составляет семь процен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емья получает на погашение кредита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наличии двух детей ставка снижается вдвое – до 3,5 процентов. А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вырастает до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Если же детей в семье трое, то ставка обнуляется, а сумма помощ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 двух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ктивн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ендного и ипотечного жилья. К 2019 году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полностью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ветхих и аварийных жилых здани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общий объем новостроек превысит 3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Сегодня островитянки не боятся рожать детей, потому что чувствуют поддержку государства,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У на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ой пакет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которого нет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Каждой семье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мы выплачиваем боле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гда появляется второй или последующие дети, семья получ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 уже свыше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Его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образование ребенка, опла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А те, кто выплачивает ипотечный кредит, получают еще около 23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его погашение. В 2016 году более 300 семе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здоровью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особенности женщин. В 2016 году в регионе завершилась двухлетняя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За это время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ткрылись 14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й этого года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 Это будет уникальное для региона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Со временем здесь даже станет возможным проходить процедуру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е студенческих 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Самые теплые слов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адресо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поднимали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вам эти островные земли стали местом, где интересн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где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творчеством, активным отдыхом, - сказал он, обращаясь к ветеранам. - Вы бережно храните наши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передаете их новым поколениям. Огромное вам спасибо.

Незадолго до праздника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двум жительницам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вручил нагрудные знаки и букеты цветов Тамаре Буториной, инструктору-методисту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ине Пустошкиной, ветерану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труда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ервый месяц 2017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составил 154,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5%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237,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88,1 процента.

Добыто 1,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Прирост - на 0,4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газ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 процент. Она составила 2,5 миллиардов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Уго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сти добыли 220,6 тысяч тонн угля, что на 126,5 процента выше января 2016 год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72,5 тысяч тонн или 100,5 процента. Переработано 45,2 тысяч тонн или 115,4 процента.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январь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209,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ли 102 процента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 на 13,1% и молока - на 4,3 %.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12%) и птицы (на 3,5%). Однако сократ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яиц в январе 2017 года на 14, 5%.

За январь 2017 года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3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в 2,3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и заем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или 11,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Прирост в 2 раза.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январе 2017 года объем рознично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вырос на 6,1%.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объемов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 1 процент и оборо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3,4%.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увеличился 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4,7 процента.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в среднем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и 47,1 тысячи рублей или 100,7 процент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 оценке, - 74 тысячи рублей. Она возросла на 6,1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февраля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0,8 процента,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е 2016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вают борьбу с нелегальной миграци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амым жестким образом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нарушения в данной сфере накануне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он подписал специальный указ, ограничивающий возмож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остранцев в ряде област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а также защищающий интересы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Официально в 2016 году трудоустрое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рядка 17000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 около 90 процентов - из стран СНГ. По информаци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не учте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 регионе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Услуги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и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ебольшие компании, как правил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выходцами из бывших республик Союза.

-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проверили ряд таких компаний. В отношении руковод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в феврале уже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незаконно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В 2016 году эта компа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приезду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580 граждан из одной из бывш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пыталась их здесь легализовать, - отметил Олег Долгий,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вместными силами УФСБ 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е также пресек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2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групп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легализацией незаконных мигрантов по поддельным документам. Оперативниками уничтожены «лаборатории», где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зготавливались фальшивые документы.

- Нужно в постоянном режиме вести мониторинг деятельности все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ы с миграцион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 немедленно пресекать эту деятельность, возбуждая в отношении компаний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а нелегалов выдворять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и страны. Мы должны сосредоточить свои усилия в борьбе с незаконной миграцией, обеспечении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ав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повыш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совещания.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рег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оссии проведет проверку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ричастны к привлечению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и последующему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Дл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ситуацией предложено усилит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с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оверят на Сахалине и работ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комплексные экзамены дл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 на владени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знание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и основ е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ложено повторно проэкзаменовать в выборочном порядке и сами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цененных ранее полученными ими знаниями.

Еще одн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е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вязано с проработкой вариантов по расширен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центра времен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иностран-

ных гражда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е ожидают своего выдворения. Учрежд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всего на 49 мест и сейчас в нем не хватает свободных площадей.

Напомним, 10 марта 2017 года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указ губернатора, который запрещает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пании по следующим вид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о хлеба и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мучных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тортов и пирожных не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втобус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 регулярным внутригородским и пригородн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перевозкам;

перевозки автомобильным (автобусн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транспортом в междугородном сообщении по расписанию;

деятельность такси;

торговля розничная пищевыми продуктами, напитками и табачными изделиям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торговля розничная напиткам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торговля розничная табачными изделиям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разборка и снос зданий;

расчистк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ых и нежилых зданий;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ьны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очие, не включенные в другие группировки.

Мониторинг влияния на рынок труда введенного запре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агентством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е функции за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рименяющим тру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 патентам,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анн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снизят поток мигрантов в регион и позволят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трудоустроить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утс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Старт состоялся сразу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На спортивной базе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бэби-марафон» дистанцией на 1 километр для ребят до 10 лет и гонка на 5 километров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Раньше других с лыжной базы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вой забег нач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йти самую сложную дистанцию в 50 километров. В это же время сотни люд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обрались в селе Лесн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Здесь был объявлен старт на дистанцию в 35 километр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лыж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ехали гости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числе лыжников - также граждане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орвег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Австралии. Почет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члены паралимпийской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и биатлону. Среди них житель Удмуртии, трё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Владислав Лecomцев.

Вот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а дистанцию в 35 километров выходит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н обратилс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лыжникам и пожелал всем легкого старта.

- Свой старт я посвящаю не только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но и 70-ле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конечно, в преддверии 8 марта всем женщина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егодня людей еще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радует.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здесь наших паралимпийцев. Ребята сильны духом, мужественные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е, вселяют уверенность всем, кто сомневается в сво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Некоторым лыжникам дистанция далась нелегко.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пятствия, ни один человек с дистанции не сошел. Спортсменов сопровождал автомобиль МЧС с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ом.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также пункты питания с кашей, горячим чаем и пирожками.

Финиш состоялся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быстрее всех дистанцию преодолел Алексей Черноусов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среди женщин в лидерах его супруга Мария Черноусова.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мужчин - паралимпийцев на дистанции 35 километров занял Владислав Лecomцев, на 15 километрах – Роман Петушков, среди женщин на аналогичных расстояниях лучшими стали москвички Екатерина Румянцева и Мария Иовлева.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арафоне сегодня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свыше трёхсот человек. Все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дипломы, а победители забега – подарки и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т партнер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ы-служб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

또 하나의 삼일운동기념식, 영구귀국 사할린동포와 함께 하는 아리랑

아리랑전승자협의회 사할린에 이어 국내 행사 계속

작년 12월 1일과 2일 사할린에서 <2016사할린아리랑제>공연을 하고 돌아온 전국 아리랑전승자협의회에서 국내 영구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을 찾아가는 <사할린동포와 함께 아리랑> 공연을 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회원은 기연옥(의병아리랑보존회 회장), 김동숙(상주아리랑보존회 회장), 김희은(부산아리랑보존회 회장), 총연출을 한 아리&랑무용단(단장: 김채원)이다.

마음을 합쳐서,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 삼일절날에 인천에 영구귀국한 200여명의 고령의 사할린 동포와 2세 3세대들과 관계자들을 위한 <사할린동포들과 함께 아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리랑공연을 올렸다.

이들은 작년 사할린에서 2016사할린아리랑제를 성료하고 돌아온 후 사할린동포들이 영구귀국한 국내 15지역 중 인천을 첫 번째로 방문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국민임대 아파트 일대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영구귀국 사할린한인이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집단거주 지역으로 287세대 490명의 사할린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영구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복지기관인 인천사할린동포센터, 인천사할린복지회관을 방문했다.

공연내용은 김채원단장의 아리랑 헌무(獻舞)로 첫막을 열고, 김희은의 사할린아리랑,

김동숙의 상주아리랑, 김정란의 본조아리랑, 박노경의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춤, 기연옥의 의병아리랑으로 휘날레를 내렸다.

장소를 제공한 인천동산비전센터에서는 다문화토요학교와 외국인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세계여성의 날에 사할린동포들을 위안하는 잔치를 열어왔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인천다문화어린이합창단, 찬조출연으로 김재택의 섹스폰, 김지호의 모던댄스의 공연도 함께 선보였다.

식전행사에서 축사를 한 아리랑학교 이인영 교장은 "작년 사할린아리랑제 행사후, 사할린 한인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할린 한인이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 리더로 활약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공노원 부회장은 "작년에 사할린에서 개최된 2016 사할린아리랑축제 소식을 듣고, 우리 사할린 동포의 고난과 역경을 기억해주는 것만이라도 감격스럽다. 특히 오늘 인천에서 다시 들어보는 사할린아리랑을 듣고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에 묻힌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뜨겁



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대행사로 기연옥 회장이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공노원 부회장에게 아리랑음반을 전달하는 증정식과 이인영 교장의 사할린어른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특별출연으로 김정란 경기소리연구원 김정란 명창과 다문화어린이합창단도 함께 했다.

공노원은 "아리랑이 위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정말 감동스러웠다. 내년에는 힘을 보태서 더 많은 공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라고 했고 공연을 본 이강연(전 안중근기념관사무처장)이 "이런 공연은 전국에 많은 사할린 동포단체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공연이다." 라고 평했다.

한편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는 오는 8일 2시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 기념 <사할린동포들과 아리랑> 두 번째 공연을 남동사할린동포복지센터(회장:신동식)에서 한다고 밝혔다.

(출처:아리랑전승자협의회)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8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야

(전호의 계속)

(3) 어제 일어 났던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

(4) 이 고통은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

(5)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집에 먼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

읽기 연습

※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판문점 답사를 다녀와서

박 발렌티나 (타슈켄트 사범대 대학원생)

몇 해 전 겨울에 한국과 북한의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JSA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앞으로 판문점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한국어교사 능력 배양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더 놀라운 것은 프로그램에 판문점 답사 일정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을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기다렸다. 왜냐하면 내 조국의 양쪽 땅을 한번에 밟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그 날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고 뭔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일찍 호텔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길을 떠나면서 가이드를 통해 많은 남북에 관한 많은 역사를 알 수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다. 임진강을 지나가면서 이 강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긴 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의 다리에서는 통일을 원하는 한민족의 마음을 봤다. 가이드가 설명을 할 때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사진은 늙은 할아버지가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이였다. 그 사진을 보면서 '혹시 할아버지는 나라가 갈라진 후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헤어졌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북쪽에 남았을까? 아니면 남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애인 생각이 나서 그쪽을 그렇게 바라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내 가슴이 찡했다.

다리를 건너가니 기차길이 보였다. 그 길로 바로 개성이라는 북한에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다. 거기서 20분 정도 더 가니 길에서 군인들이 여권 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분을 더 가니 공동경비구역(JSA)라는 곳에서 다시 여권 검사를 받고 버스를 갈아타고 미군의 인도로 판문점에 가게 됐다. 길 양쪽은 논밭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쌀은 한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맛있는 쌀이라고 하였다. 그 농장을 '자유 마을'이라 부른다고 한다.

드디어 판문점으로 간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작은 골프장이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골프장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리자 두 줄로 된 작고 아담한 집처럼 생긴 파란 건물 두 개가 나왔다. 어, 영화에서 나왔던 건물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는 두 명의 군인이 눈에 띄었다. 군인들을 보느라고 가이드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군인 아저씨가 움직이지도 않고 서있는 그 모습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다. 그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고, 다음으로는 내가 북한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건물은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이크선이 지 나간 곳이 바로 북위 38선이였다. 북한쪽을 바라보고 그 땅을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다. 한국 땅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자 내 마음엔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답사를 마치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생겼다. 판문점을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좋았으면서도, 북한 땅을 마음대로 밟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내가 한국 땅이든 북한 땅이든 마음껏 밟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언제 올는지.....

글쓴이는 마음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글쓴이의 꿈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글쓴이는 국경지대를 방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글쓴이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제학습

1. '-(으)르 턱이 없다', '-(으)르지언정', '-(으)르라', '-(으)르라치면', '-(으)르래도 /-(으)르래야 -(으)르 수가 없다'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창립 멤버' 김해운 항일희곡 공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과거 소련의 우리말극장에서 공연됐던 8편의 희곡 작품이 책으로 소개됐다.

8일 (사)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광주고려인마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병학 시인이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구 원동 고려인극장·1932~1937년) 창립 멤버 김해운의 작품을 모은 '김해운 희곡집'을 발행했다.

김해운 희곡집에는 1935년 5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초연한 연극 '동북선'을 비롯해 1948년 타슈켄트 조선극장 무대에 오른 '생활', 1957년 사할린 조선극장에서 공연한 '장화와 흥련' 등 당시 소련의 각 우리말극장을 대표하는 희곡들이 수록됐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해운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고증됐고 부록에는 그가 쓴 시와 가사들도 포함됐다.

희곡집은 재소 고려인 연극사의 빠진 고리를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5년 역사의 고려극장이 여전히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무대에 오른 희곡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1950년대에 문을 닫은 타슈켄트·사할린 조선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학 시인은 일제가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조선의 농민과 노동자를 동원해 함경북도 청진에서 웅기(선봉)에 이르는 동북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혹사와 억압에 맞서는 내용을 다룬 '동북선'을 백미로 꼽았다.

'생활'은 가정파탄의 슬픔을 이기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여주인공의 변화를 묘사했고 '장



화와 흥련'은 장화흥련전을 근대적 관점으로 각색했다.

김병학 시인은 이 책을 통해 "김해운 희곡 중에는 스탈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체제와 개인승배를 찬양한 작품도 있다. 그러나 고려인 인텔리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한계를 너그럽게 보듬을 때 우리의 이해의 지평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시인은 카자흐스탄에서 25년을 거주하며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한진전집', '경천아일록' 등 고려인 관련 서적을 펴냈다.

국내로 돌아온 후에는 광주고려인마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고려인 영화제와 고려인 역사박물관(재소한인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предметом по выбору стало обществознание. Эту дисциплину выбрали более 3300 школьников. Далее следует биология — 2102; 1409 участников выбрали географию; 734 — информатику и ИКТ; 600 — физику; 562 — химию; 432 —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189 — литературу; 187 — историю.

ГИА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9-х классов пройдет в 2017 году в три этапа: досрочный — с 20 апреля по 6 мая, основной — с 26 мая по 24 июн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 с 5 по 22 сентября.

돌린스크, <올해의 학생> 선발

3월 16일 돌린스크시 <러시아>영화관에서 <올해의 학생>콩쿠르 경쟁자들이 만난다. 콩쿠르 개최에 대한 결정은 청년의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올해 행사는 <생태학 해>와 сахалин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다. 따라서 이번 콩쿠르의 참가자들에게 주어질 과제는 <자연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라는 주제다. 또다른 단계의 시험은 응변으로 <우리는 왜 сахалин을 좋아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4월(날짜 미정)에는 <스포츠여, 너는 평화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콩쿠르인 <올해의 선수>가 개최된다.

청년의회는 또한 돌린스크구역 학교, 보충교육학교, 전문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시정돈 프로젝트 콩쿠르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여 청소년들은 정보, 기술, 자연보호, 교육, 사회문화 부문에 따라 제작된 기획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콩쿠르는 시행정부가 주최한다고 <돌린스카야 프라우다>지는 전했다.

В Долинске выберут "Ученика года"

16 марта в ККЗ "Россия" встретятся претенденты на звание "Ученика года".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остязание школьников посвящается Году экологии и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называется "Природа — творец всех творцов". Другой тур состязания — орато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 рассказ "За что мы любим Сахалин".

В апреле (дату определяют позже) состоится другой любимый школьниками конкурс "Спортсмен года" с домашним заданием "О спорт, ты — мир!".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также предлагает обучающимся школ, у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начальн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

ния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район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проек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рода. Молодые люди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ов по номинациям: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ред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сред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сред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реда; социо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ообщает "Долинская правда".

сахалин주향토박물관, 인형전시회 개막

주향토박물관이 여성의날 기념 전시회에 초대한다고 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3월 10일 16시 сахалин주향토박물관에서 주향토박물관과 주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엄마, 나를 어린 시절로 보내줘"라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관람객들을 어린 시절로 돌려보내 줄 인형 200 여 개가 출품되며, сахалин 인형의 역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인형은 아이들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시사회부터 생겨난 인형은 시간이 흐르며 형태도 변형되고 의미도 달라져왔다.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했던 인형의 형태는 지금과 똑같았을까?'라는 질문의 답변을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박물관들은 시대별 수집된 인형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сахалин주향토박물관은 약 500 개의 대규모 인형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едставляет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игрушкам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открытие новой выставки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10 марта в 16 час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ывается выставка "Мама, отведи меня в детство..." из собр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более 200 игрушек разных периодов, уводящих в мир детства и знакомящих с историей игрушки, бытовавшей на Сахалине. Игрушки — важнейшее средств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Первые игрушки появились еще в первобытном обществе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еобразовывались и меняли свое назначение.

Игрушки были всегда, но были ли они такими же?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можно найти в музеях. Многие музеи хранят в своих коллекциях игрушки разных времен. Внушительную коллекцию игрушек — около 500 предметов — хранит и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